# 성파 대종사가 펼치는 '선예'의 극치

〈禪藝〉



성파 대종사는 오는 9월 4일부터 11월 2일까지 청주에서 열리는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에 참여해 특별전 '성파 선예전-명명백백(明明白白)'을 대중에게 선보인다. 사진은 성파 스님이 길이 100m 대작인 '명명백백'을 살펴보는 모습.

사진 제공=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제14회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성파 대종사 선예전 '명명백백'**
**공간 감싼 길이 100m 한지작품**
**'본래면목 마주하라' 화두 전해**
**특유의 옻 예술 작품도 선봬**
**9월 4일부터 11월 2일까지 전시**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종단의 신성이자 한국불교 장자종단 조계종의 종통을 승계하는 최고 권위의 정신적 지도자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예, 민화, 도자 등 다양한 장르에서 독창적 작품세계를 보여 온 예술가이기도 하다.

성파 스님이 펼치는 예술세계는 선(禪)을 바탕으로 한다. 그렇기에 세간에서는 스님의 작품을 선 수행의 일환으로 펼쳐지는 예술, '선예(禪藝)'라고 말한다. 성파 스님이 펼쳐낸 선예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스님은 오는 9월 4일부터 11월 2일까지 청주에서 열리는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에 참여해 특별전 '성파 선예전-명명백백(明明白白)'을 대중에게 선보인다.

전시 주제이자 대표 작품명인 '명명백백'은 일체의 꾸밈없이 순수한 본질 그 자체를 추구하는 수행자적 선언이다.

전시 공간 전체를 폭 3m, 길이 100m에 이르는 순백의 한지 한 점으로 감싸는 작품 '명명백백'은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과 다르지 않다'는 '극소동대(極小同大)'의 통찰을 담아내고 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가느다란 섬유질 가닥들의 조합이자, 동시에 하나의 완결된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전체 전시 공간의 모습.

강재영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예술감독은 "미분과 적분의 상호 작용으로 미세한 요소가 전체를 이루고, 전체가 다시 미세한 요소로 환원된다는 수학적 사고와도 통한다"며 "한지 하나에 철학과 종교, 공예와 예술이 들어 있다"고 극찬했다.

성파 스님의 선예는 '재료에 대한 연구'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스님은 전통 한지 제작부터 안료와 염료의 재배 및 가공에 이르기까지 작품의 물감과 바탕이 되는 재료들을 직접 다뤘다. 특히 '옻'이라는 물성을 활용한 스님의 작품은 회화, 도자, 섬유, 조각 등에서 독자적인 예술 장르를 만들어냈다. 이번 전시에서도 스님만의 옻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실제 한지로 둘러진 전시 공간 내에는 옻으로 변화하는 색들과 별들의 향연이 펼쳐진다. 작품 '별들의 향연'은 칠흑 같은 옻칠 속에 자개 가루가 은은히 반짝이며 밤하늘의 별빛과 이를 담아내는 우주를 연상시킨다.

작품 '공에서 색으로'는 한지 위에 옻칠 연작 시리즈로 순백 위에 변화의 색조가 펼쳐진다. 순백의 한지 위에서 나오는 변화의 색은 공(空)에서 색(色)으로, 무(無)에서 유(有)로 이어지는 순환의 흐름을 품고 있다.

강 예술감독은 "'명명백백' 전은 침묵 속의 명료함을 담아내고 있다. 근본으로 돌아가 자기를 비우라는 의미다. 물병에 물을 비워야 채울 수 있듯이 맑고 깨끗한 본성 그 자체를 발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면서 "성파 스님의 작품은 단순하면서도 본질적이고, 사물의 핵심을 꿰뚫는, 승(僧)과 속(俗)을 넘어선 선예의 극한을 보여 준다"고 상찬했다. 이어 "크고 깊은 통도사의 품과 같은 '성파선예(性坡禪藝)'의 맑고 청아한 세계를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권선했다.

한편, 올해로 14회를 맞은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는 '세상 짓기'를 주제로 진행된다. 주최 측은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미술-디자인-건축을 아우르고, 인간-자연-사물을 연결하며, 집단의 문화를 표현하는 공동체와 함께 고민하는 공예의 새로운 정체성과 가능성을 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는 청주시 문화제조창 일원에서 열리며 성파 스님의 전시는 동부창고 6동(청주시 청원구 덕벌로 30, 내덕동)에서 진행된다.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⑧ 처염상정

# 오염된 세상에서 맑게 살아가기

處 染 常 淨

한여름 연못 위에 핀 연꽃은 은은한 향기와 함께 청아한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불자들에게 연꽃만큼 사랑받는 꽃도 드물다. 대승불교의 정수인 〈법화경〉의 본래 이름은 〈묘법연화경〉으로, 깊고 미묘한 깨달음의 법을 연꽃에 비유했다.

연꽃은 또한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정토를 상징한다. 진흙과 탁류 속에서도 꽃잎은 조금도 물들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더 단정한 빛을 발한다는 점에서 불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중국 남송 시대 이후 정토신앙이 퍼지면서, 불자들은 백련사(白蓮社)를 세우고 정토에 태어나기를 발원하며 염불 수행을 이어갔다. 고려 시대에는 요세 스님이 강진 만덕사에서 승속이 함께 백련결사를 맺어 참회와 계율, 염불 수행에 정진했다. 오늘날에도 '연화사', '백련사' 같은 절 이름이 많고, 법당의 좌대와 문살에도 연꽃 문양이 새겨져 있다. 연꽃은 수행자의 마음가짐을 일깨우는 상징이었던 셈이다.

연꽃은 불교뿐 아니라 유학에서도 귀하게 여겨졌다. 북송의 유학자 주돈이는 〈애련설(愛蓮說)〉에서 연꽃을 군자에 비유하며 이렇게 말했다.

"연꽃은 진흙에서 나왔으나 더럽혀지지 않고, 맑은 물에 씻겨도 요염하지 않으며, 속은 비고 밖은 곧으며, 덩굴지지 않고 가지 치지도 않는다. 향기는 멀수록 맑고, 그 모습은 우뚝하여 멀리서 바라볼 수는 있어도 함부로 다루거나 다룰 수 없다."

이 구절에서 비롯된 말이 바로 '향원익청(香遠益淸)', 멀리 퍼질수록 더욱 맑아지는 향기라는 뜻이다.

불교에서는 이와 짝을 이루는 말로 '처염상정(處染常淨)'을 전한다. 오염된 곳에 있어도 늘 맑음을 지닌다는 뜻이다. 불자들은 신중단 예불에서 이렇게 발원한다.

"처세간 여허공 여련화 불착수 심청정(處世間 如虛空 如蓮花 不着水 心淸淨)"

"내가 비록 오염된 세상에 살아가도 허공과 연꽃처럼 더러운 물에 물들지 않고, 마음이 청정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언제나 번뇌와 시비로 가득하지만, 그 속에서도 정직을 잃지 않는 사람, 다툼 한가운데서도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권세와 이익 앞에서도 초연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 곧 '처염상정'의 삶을 사는 이다.

무심과 청정의 삶을 살아가는 이는 연꽃처럼 고결하다. 오염된 세상 속에서 맑음을 지니면, 그 삶 또한 멀리 퍼져 더욱 맑고 향기롭게 빛나리라. 처염상정하면 향원익청하리라.

〈화순 불암사 주지〉

# 거장 박범훈 소리 인생 60년을 기리다

**9월 11일 국립국악원 예악당**
**'소리연 60 도반' 특별공연**
**한중일 음악회 韓대표 참석도**

한국음악의 거장으로 평가받는 박범훈 조계종 불교음악원장의 음악 인생 60년을 기념하는 공연이 열린다.

오는 9월 11일 오후 7시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열리는 특별공연 '박범훈의 소리연 도반'은 오늘날 한국 음악계 최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박 원장 제자들이 스승을 위해 마련한 뜻깊은 헌정 무대이다.

공연 프로그램은 박 원장의 60년 음악 세계를 망라하는 대표작들로 꾸며진다. 박범훈류 피리산조보존회가 선보이는 산조 연주를 시작으로, 국악의 대중화를 이끈 기념비적인 작품인 사물놀이를 위한 관현악 '신모듬'을 김덕수패 사물놀이의 협연으로 만날 수 있다. 또한 한일 음악교류의 상징인 가야금 명인 문양숙과 일본 샤쿠하치 연주자 소가와의 이중주 무대, 아시아의 화합을 노래한 오케스트라를 위한 '뱃노래' 등에서는 그의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확인할 수 있다.

공연의 대미에서는 박 원장이 직접 무대에 올라, 그의 오랜 도반인 명인 최경만과 함께 피리협주곡 '창부타령'을 협연하며 60년 소리 인생의 깊은 울림을 전한다.

공연을 준비한 제자들은 "선생님과 함께 웃고 울었던 지난 세월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국악의 현재를 확인하고 더 밝은 미래를 그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박 원장은 8월 30일 중국 마카오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한중일 교류음악회 '동방지광(東方之光)'에 한국 대표 작곡가로 참여해 교향 모음곡 '푸살 천도(薦度)'를 선보였다.

신중일 · 김내영 기자


